

지역 소식통

김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확산 등에 위치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주택과 텃밭을 일정기간 임대해 주고 농업의 전문적인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난 2023년 12월 조성을 완료했다. 실습농장 입주자들에게는 텃밭 제공과 부대시설인 교육동(327㎡)을 사용해 영농실습교육, 재배실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는 4세대(주택 50㎡)를 모집 중이며, 입주 기간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이다. 입주 대상자는 65세 이하 세대주(단독세대 입주 불가), 모집 신청일 현재 토 도 시의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1년 이내인 자다.

신청방법은 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방문접수 또는 lucky14@korea.kr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지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김제시보건소는 18일 용지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용지면은 기존 면 내의 약국과 병원이 1개소씩 개설돼 있었으나 지난 5월 약국 폐업(구안 약국)으로 인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의약품 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시는 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처방과 직접 조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용지면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용지보건지소(김제시 용지면 용지로 475)와 관내 한독의원(김제시 용지면 황토로 752)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다만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봄날 잔잔한 꽃빛 감동 선사

2024 꽃빛드리 축제 중간 보고회 개최

'2024 김제 꽃빛드리축제'가 시민에게 소소한 기쁨과 설레는 순간을 선물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시청 상 황실에서 '2024 김제 꽃빛드리 축제'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꽃빛드리 축제는 '작지만 소중한 감동, 김제의 꽃빛 봄날'이라는 주제로 시민에게 일상의 행복, 소소한

기쁨, 설레는 순간, 사소한 재미를 선물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오전 10시~오후 7시) 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7개구역으로 나눠 총 128개 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술이 없고, 친환경적이고 시민이 만들고 격식이 없는 축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



지난해 열린 '2023 김제 꽃빛드리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정성주 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제시청 제공)

을 보완하기 위해 휴식공간 확충 아이들 공간 확대, 산책로 추가 조성 및 먹거리부스를 확대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전문기관에 대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사회 자생력 창조 역량 강화 및 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 폭넓은 주민참여와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린이를 위한 플레이존과 플리마켓을 확대한다.

특히 바가지 없는 판매부스를 위해 음식 가격을 3,000원~1만원 사이로 정하고 깨끗한 축제환경 조성을 위해 자체 청소관리를 깨끗한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난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운동장에서 아름다운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꽃빛드리축제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올해도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축제가 순수한 지역자원으로 내실과 성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웃음이 가득한 축제로 자리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빛드리축제는 올해 3월 1주차 전국개최 축제 트렌드 지수를 분석한 결과 14위에서 3월 2주차 9위로 4계단 상승하며 전국적인 축제지로 이름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18일 완주군은 삼례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민·관·경 합동 '안전 한 바퀴' 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일단 멈춤”

완주군, 개학기 맞아 등굣길 '안전 한 바퀴' 캠페인

완주군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18일 완주군은 삼례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초등학교 생 보호 안전을 위한 민·관·경 합동 '안전 한 바퀴'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전 한 바퀴는 주민, 지자체, 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이 함께 모여 생활 구역 주변을 탐방하고 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 신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주민 참여형 안전문화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3월 개학기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완주경찰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완주군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 이뤄진

안전관련 민간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등교 시간대 학교주변 안전상태 점검, 교통안전 홍보용품 배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차 단속 등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를 펼쳤다.

캠페인에 함께한 조영식 부군수는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등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지역 농협 조합장, 고향사랑기부 응원 릴레이

김대호 전주완주시군부장 지역 내 농협 조합장 참여

김대호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 조합장이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관내 농협이 담배품 공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다.

농협이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면서 기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응원 릴레이와 함께 농협은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해 완주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대호 지부장은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농민, 기부자,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호 농협중앙회전주완주시군부장을 비롯한 관내 농협 조합장이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담배품 선호도 1위는 농산물로,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의 농산물은 충분히 매력적인 담배품이다"며, "좋은 상품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흑곶감, 양파, 농산

물 꾸러미, 한우, 관광서비스 등 담배품 27종이 있으며, 향후 담배품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된 담배품은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24일까지 결핵예방주간 운영

경로당 등 12곳 교육 및 전통시장서 캠페인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3월 24일 '제14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결핵은 없어진 질병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국 중 2위로 여전히 높다. 2급 감염병인 결핵은 주로 활동성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파된다.

증상으로는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이 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65세 이상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결핵예방 주간에는 결핵에 대

한 인식을 개선하고 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0일까지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 12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결핵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오일장이 열리는 22일에는 김제 전통시장 일대에서 결핵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보건소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검진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핵 검진은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